

긴급진단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우선협상자 제주 금융권 탈락 '논란'

상생방안 없고 자금 역외유출 우려도

도, KB국민카드-코나아이 컨소시엄 선정 도의회, 입시회서 지역화폐 쟁점 다룰 듯

자금 역외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화폐 운영대행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가운데 지역금융권이 탈락하면서 앞서 지역금융권의 참여 필요성 및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던 제주도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기술협상 과정이 진행

중으로, 이달중에는 운영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된다.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금액은 55억5000만원이다.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11월 첫 선을 보일 예정인 제주 지역화폐는 카드·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발행된다. 목표 발행 규모는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등 3년

간 총 3700억원이다.

그런데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역 금융권이 탈락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농협과 제주은행 등 도내 금융권 컨소시엄이 참여했지만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16일 개최한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에서 '지역화폐'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현길호)는 오는 22일 지역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4일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할 예정이다.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추진상황' 현안업무보고에서 도의 금융기관이 지역화폐 운영을 맡을 경우 자금 역외 유출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면서 지역 금융권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지류형 (종이상품권) 발행 여부도 관심사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카드형 및 모바일형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른 종류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있다. 관련해 앞서 도의회는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 우려를 지적하면서 종이 상품권 병행 발행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오른기자 ejoh@ihalla.com](mailto:ejoh@ihalla.com)

"스쿠버 체험객 사망... 업체 안전의무 위반"

지법, 30대 운영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속보=부실 수사 논란으로 번진 잇따른 스쿠버 다이빙 체험객 사망사고 (본보 2019년 10월 15일자 4면 보도)는 업체 측의 안전 수칙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9월 8일 B(41)씨와 짝을 이뤄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면 위로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6월에도 안전의무를 게을리 해 다이빙 참가자 C(47·여)씨가 스쿠버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인 1조 잠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입수 위치와 파도 세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해경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9개월 사이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해경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낳았다.

2018년 8월 발생한 첫번째 사망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던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씨의 혐의가 없다며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그해 12월 내사 종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A씨가 짝과 헤어지면 즉시 상승해야 하는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듬해 1월 A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냈다.

해경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수사에 나섰지만 이 와중에도 A씨는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했고, 결국 첫번째 사망사고 발생 9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두번째 사고를 야기했다. 이 때문에 해경이 최초 사고 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는 바람에 2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상민기자

"제2공항 의견 수렴 추석전 일정 정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국토교통부가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 가능성을 놓고 토론을 한 후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추석 전에는 도민 의견 수렴 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와 국토부 등이 도민 여론 수렴 방안이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이번 합의에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포함된 비상도민회의를 협의 주체에서 제외한 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비상도민회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길고 긴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해 애써 온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할 일이 더욱 막중하다"며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청 출입제한조치 유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제한조치가 당분간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청사 출입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청사 출입제한조치 유지에 따라 모든 청사 내 공적업무(민원, 회의 등) 외 방문자의 출입은 제한된다. 특히 방역 전담부서 (보건건강위생과)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업무 관련 회의 참석자 이외의 외부인에 대한 출입은 전면 제한되고 있다. 이태은기자 lty9456@ihalla.com



방치된 태풍 피해 흔적 16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 설치된 해안펜스가 지난 태풍에 훼손됐지만 복구가 미뤄지면서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강희만기자

흙친 차 몰던 고등학생 가드레일 충돌... 2명 부상

고등학교 1학년생 두명이 흙친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5분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삼거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해 도로 인근 밭으로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1학년생인 운전자 A(16)군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과 함께 이 차를 한경면 고산리 주택가에서 흙친 판포포구까지 운전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이들 2명만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A군과 B군은 척추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 에어백도 펼쳐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동갑내기 친구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과 B군은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늘(16일) 오전 사고 차량에 대한 도난 신고가 들어온 상태"라며 "현재 이들 고등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지하·칠성로·명동로 시범상가 선정

중기부 "스마트 상점 육성"

제주시 소재 제주중앙지하상점가와 제주칠성로상점가, 서귀포시 이중삼거리 명동로상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시범상가에 선정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상점을 집중 육성할 전국의 스마트시범상가

35곳(복합형 25곳, 일반형 1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에서 선정된 3곳은 모두 복합형 상가다.

복합형 시범상가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스마트미러, 스마트 메뉴보드, 키오스크, 서빙·조리 로봇과 같은 스마트 기술이 지원된다. 비대면 예약, 주문,

결제 등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도 도입된다. 일반형 상가에는 스마트오더 시스템 도입이 지원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 서울 신촌 상점가 등 20곳(복합형 5곳, 일반형 15곳)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직접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상점 모델샵'도 구축하고 있다. 백근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립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 조 생 1,3년생
감 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뱅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요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레아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 신애강,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 탕자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